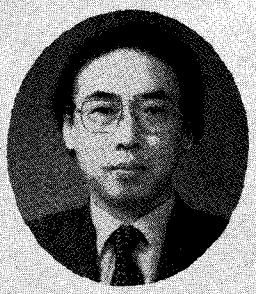
환경보호!
그, 끝없는 시작을 위하여…

— 공부하는 「관리인」, 책을 읽는 「환경인」이 되어야 한다 —



朴 昌 根
〈本会 고문, 環境教育会 회장〉

1.

우리네에겐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책은 학창시절에나 읽는 것으로 아는 습성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건, 대학교를 졸업했건,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그 날부터, 공부와 책도 졸업한 것으로 안다.

어쩌다, 직장의 동료가 학문적인 책을 읽고 있는 것을보면, 무슨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냐? 고 묻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그럼 왜 공공부 책(?)을 보느냐? 고 의아해 한다.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책 읽는 것을 시험공부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는 10여년 전 부터 실시해온 이상한 입시제도 때문에 생긴 습성이라고 본다.

소질이나 희망 따위는 무시하고, 오직 몇 점의 시험 점수만으로 법대를 지망하고, 의대를 지망하는 Go, stop 같은 대학진학이 만들어낸 「한심」이다.

오직, 점수만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책을 본 우리네 현실이 오늘날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책은 공부책만 읽게 한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모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있는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다.

"선배님!

큰일 났읍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 애들이 너무 입시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면, 반편이가 될까 보아, 방학동안만이라도 머리를 순화시킬 셈으로 세계명작을 두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 오라고 했더니…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소설 책이나 읽으라고 하느냐? 고, 대학입시에 떨어지면 책임을 지겠느냐? 고…"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엔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은 소상하게 잘 알지만, 그 중 어느 한 작품의 내용이나, 사상의 흐름을 물으면 그만 깜깜해진다.

입시를 위해, 「괴테」를 배웠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알고 있지만, 왜 「베르테르」가 「롯테」의 남편에게서 권총을 빌려 갔는지는 모르고 있다.

요즘 같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기 전의 옛날에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공부가 아닌 독서로 세계 문학전집을 읽었다.

그래서, 20대의 청년 시절엔 누구나 꿈 많은 문학청년이였다는 여유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부는 입시를 위해서 책은 공부를 위해서 읽는 살벌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였다.

하기야, 학교를 졸업하고도 읽기는 읽는 모양이다. 스포츠 신문에, 흥미위주의 주간지 그리고 만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읽어야할 것을 다 읽고 읽는다면야 어쩌랴만, 정작 읽어야할 것은 읽어 보지도 못하고, 소문이나 흥미에 치우치니 그것이 문제다.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다. 30대 직장인이 「아시모브」를 읽고 40대 주부가 「슈마허」를 읽고, 60대 할머니가 「아가사 크리스티」를 읽는다.

그에 비해 우리네 지하철 풍경은 독서가 아닌 신문 읽기, 그것도 온통 스포츠 신문 읽기다.

×××투수가 여배우 ○○○과 어쨌다느니, 가수 △△△가 미국에서 임신하고 귀국했다느니, 탤런트 □□□의 극비(?) 신상공개 등 도무지 이야기랄 것도 없는 소문이 대단한 호기심으로 소개되고, 그것이 話材가 된다.

실력은 없고, 소문만 꽉 들어찬 머리, 그러니 stone Head라는 소리를 듣는다.

2.

환경보호란 항상 「始作」일뿐, 끝이 없는 「作業」이라고 했다.

지난 가을의 일이다. 영국의 「테임즈江 보호시민위원회」의 Richard M. Doren 박사를 만났을 때, 공교롭게도 「한강종합개발공사」가 끝났다고 불꽃놀이를 하고, 강변 가요제를 하고, 그렇게 법석을 떨고 있었을 때였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말이다.

사실 영국의 「테임즈江」은 우리네 한강보다 훨씬 맑고, 안전하다. 그런데도 「테임즈江」살리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보호 작업에, 「시작」만 있을뿐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보호 작업에는 미리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되면, 환경이야 어찌 되였건, 행정적으로 끝났다고, 집어 치우는게 보통이다.

그래서 환경의 꼴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고, 아니 더 악화되고 있다.

마치, 공부와 독서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진취적인 발전을 안하려는 것과 같이….

다른 것은 그만 두고, 공부하는 분위기와 새 학문의 추구만 본다.

「녹원출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환경관계 서적만을 출판해 왔다. 환경관계 기술서적으로 부터, 중·고등학생 및 일반을 위한 환경관계 교양서적에 이르기까지 약 40여종의 環境良書를 출판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나 판매실적은 실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赤字였다.

보통 초판 2천부를 찍어, 전국 서점에 배본

하지만 5～6개월 지나면, 책을 딱지가 붙어, 책이 반송되여 온다. 팔리지 않는 책, 좁은 매장에 진열해 둘 수 없어, 반품한다는 반송 이유다.

왜? 환경관계 책이 팔리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책을 읽어야 할 환경관계 전문인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녹원출판사」가 환경관계 서적만을 전문적으로 출판하기 시작한 것은 첫째, 환경문제가 深化, 擴大됨에 따라, 보다 새로운 지식을 보급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과 둘째, 2만여명이 넘는 전문 환경인이라고 할 「환경관리인」의 계속적인 공부를 돕고, 환경교수, 환경공무원의 活字 매체의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였고 세째, 환경문제는 하루가 달리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하는 것이기에, 이런 작업을 돕는 것이, 또 하나의 환경보호의 길이라고 생각한 「녹원출판사」 대표 서영두씨의 고집 때문이였다.

그러나 지난 해, 赤字가 한없이 누적 되더니 금년 들어서는 더 어쩔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초판 2천권에서 1년동안 팔리는 것은 고작 2백권 정도라고 한다.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지식을 쌓지 않고, 버티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환경이 이 정도로 악화되여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月刊잡지의 경우도 같다.

「月刊 公害對策」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있는 환경관계 잡지다. 그러나 지령 100호가 되는 현재의 定期 구독자는 7백명선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이다. 필자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인」은 적게 잡아도 5만명은 된다. 아니, 「환경교수」「환경공무원」「환경사업가」「환경 관리인」 그리고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과 운동가 등 그 외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10만명은 훨씬 넘는다.

그런데, 단행본이 1년에 2백권 정도 팔리고, 월간지가 7백권 정도가 유료 구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어찌자는 것인지.

3.

공해배출 공장에는 법으로 환경관리인을 두어 공해를 막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얻는다.

현재의 시험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문계를 제외한 이공계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즉, 몇달만 관련 시험 문제집을 익히면, 자동차 면허 시험같이, 간단히(?) 치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얻는다.

그리고 취업하여 공해방지 일에 종사한다. 그러면 그만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일단 얻은 자격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원히 유효하다.

그 영원한 유효성이 혹시 나태함을 불러 오는 것은 아닐런지? 즉, 자격증을 얻어 취업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함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런 노파심이다.

입시 위주의 학교공부와 같이, 商大를 나왔건 法大를 나왔건 공부해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얻고, 그리고 취업하면 그만이라는安易가 더 공부하지 않는, 더 책을 읽지 않는 환경관리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솔직히 말해, 환경관리인은(새로운 오염에 대

처하기 위해서) 한시도 책을 손해서 놓아서는 안된다.

현장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출퇴근의 차 속에서도 새로운 오염을 찾고, 연구하고, 응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 발전과 회사의 이익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끊임 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있는가?

그 증거가 그래, 단행본 2 백권에, 월간지 구독 7 백부인가?

혹자는 읽을만한 새 논문이나, 새 기술의 소개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 한번이라도 출판사에 잡지사에 알고 싶은 기술, 읽고 싶은 논문을 부탁이나 해 보았는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요청을 단 한번이라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소개되는 논문과 기술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전화 한통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5 ~ 6 년전의 일이다. 필자가 모 환경잡지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을 때, 필자는 독자의 반응을 알기 위해, 모 교수의 기술공학 논문을 게재하면서 일부러 다섯 곳을 틀리게 기재했다. (물론, 나중에 정오표를 냈다.)

즉 1 + 1 = 2 인데 1 + 2 = 2 와 같이 눈에 쉽게 뜨이는 오자를 내 보낸 것이다.

몇 사람으로 부터, 지적이 오는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 ~ 5 개월이 지나도 단 한건의 지적도 없었다.

그래서 잡지를 구독하는 폭이 좁아서인가 싶어, 어느 기술 세미나의 교재에서도 일부로 탈자와 오자를 내 보냈지만 종무 소식이였다.

결국, 아무도 그 논문을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읽은 것은 논문을 쓴 교수와 寫植을 친 기술자 그리고 교정을 본 기자 뿐이였다.

공부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어떻게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심해지는 오염을 막겠다는 것인가?

4.

환경관리인은 공부를 하고, 환경인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은 더욱 深化되고, 擴大된다.

환경공부를 한다고, 활성오니처리법만, 전기집진기 회로만 들여다 보아서는 안된다.

환경의 다양성에 맞게, 폭 넓게 공부해야 한다. 환경 공학은 물론, 기상학, 생태학, 토양·지질학, 경제학, 미학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와 환경이 미치는 모든 영역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환경관리인은 1 차적으로 자신이 소속해 있는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 시장경제는 물론, 기업경제와 공해방지 비용의 문제 등을 폭 넓게 연구해야 하며, 공해의 처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의 再活用을 위한 idea 창출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이익임을 명심해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챔피언의 獨白이다.

"챔피언을 따기는 쉬었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어려웠다."

그런 獨白과 같이, 우리도 명심해야 한다.

"환경인이 되기는 쉽지만, 환경인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항상 고독 하고 끝없는 시작일 뿐이다.

그 고독과 끝없는 시작을 위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